

# “웃음 터져 NG 많이 냈죠”

## 이유리 KBS 2TV 주말극 ‘아버지가 이상해’서 코믹연기 눈길



“제가 연기 생활 17~18년째입니다. 웃음이 터져서 대사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웃느라 NG가 너무 많이 나오. 배우 뿐 아니라 스태프들도 웃음을 참느라 사방에서 ‘큭큭’ 댁니다.”

시청률 30%를 넘어서며 인기 행진 중인 KBS 2TV 주말극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주인공 변씨 집안의 딸 ‘변혜영’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리(37·사진)는 촬영장 분위기를 말하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아버지가 이상해’는 홈 코믹극이다. 아버지가 간직한 비밀이 목격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말 가족극답게 코미디를 강화해 발랄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이유리도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드디어 ‘연민정’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2014년 안방극장을 들었다 놓은 MBC TV ‘왔다 장보리’에서 그가 연기한 ‘연민정’은 이름도 잊히지 않는 악녀다. 연민정 덕에 타이틀 롤 장보리(오연서 분)를 제치고 그해 MBC연기대상을 받았지만, 그만큼 ‘연민정’ 이미지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연민정이 너무 쟁쟁. 하지만 연민정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기하진 않았어요. 늘 대본만 생각하고 주어진 역할을 잘해내려고 했어요. 다양한 캐릭터 중 코미디를 별로 안 해 봐서 코미디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변혜영을 만나 기쁩니다. 배우로서 좀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난 것 같아요.”

코미디에 대한 욕심으로 그는 ‘아버지가 이상해’를 찍는 동안 KBS 2TV 월화극 ‘완벽한 아내’에 세 차례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다. 역시 엉뚱하고 깜찍한 코믹 연기로 화제를 모았다.

“고소영 언니랑 세 번 촬영을 했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언니도 좋았고, 제가 카메오를 한 역할 자체가 재미있어서 바쁘게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변혜영은 당찬 성격의 변호사다. 매사 푹 버러지고, 다소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족을 위해 앞장서는 속 깊은 면도 있다.

자신의 가방을 몰래 가져다 쓴 둘째 여동생의 머리 끄덕이를 잡기도 하지만, 첫째 여동생을 학창시절 괴롭혔던 가해자 앞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대차게 나가는 모습이 시원시원해 시청자의 호응을 얻는다.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작가님이 캐릭터를 너무 잘

짜주셨어요. 저는 그 대본 속 변혜영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걸 잘 살려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예요. 글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느낌을 연기로 다 못 살리는 게 아쉬울 정도죠. 변혜영의 성격, 당찬 결혼관과 여성관 등이 지금 여성들의 생각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유리는 “개인적으로는 변혜영이 당찬 만큼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런 점에 포인트를 주고 있다”며 “평소 패션도 오피스 룩이지만, 데이트할 때는 최대한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안의 자랑이자 기둥이었던 변혜영은 그러나 남자친구 정환(류수영)과 비밀 동거를 하다 들켜 집안을 뒤집어 놓았다. 일련의 소동 끝에 혜영은 정환에게 1년간 결혼 인턴제를 제안했다.

2010년 일찌감치 결혼한 이유리는 혼전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변혜영의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그려진 것처럼 동거에 대해서는 세대간의 인식 차도 크고요. 가족 드라마에서 이렇게 동거를 본격적으로 다룬 적이 별로 없어서 시청자에게 어떻게 비칠까 저도 궁금했는데, 역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리는 ‘아버지가 이상해’의 출연진 간 호흡이 너무 좋다는 말을 많이 했다. 특히 시골벽척한 5남매와 부모가 어울리는 모든 촬영이 즐겁단다.

“변씨 가족 신이 진짜 웃기거든요. 엄마, 아빠도 너무 웃기고 중의까지 들어오면서 5남매가 됐는데 서로 진짜 친해요. 다들 이번에 처음 같이 하는데 뭉쳐서 지내니까 금세 친해졌어요. 미영이 역의 정소민, 라영이 역의 류화영과 너무 성격이 잘 맞아요. PD님도 저희끼리 친한 게 눈에 보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웃음이 자꾸 터지니까 큰일입니다.”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능청스럽게 해야하는데, 대본이 너무 웃기고 배우들끼리의 상황이 재밌어 웃음이 터져 NG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드라마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며 “드라마가 끝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아쉽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 ‘노무현입니다’ 박스오피스 2위

## 누적 관객 38만 5천명 ... 다규 영화 사상 이례적 흥행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다규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사진)가 주말에도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노무현입니다’는 지난 27일 하루 20만 5618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2위를 지켰다. 이로써 개봉 3일째 누적관객 38만 5618명을 기록, 손익분기점인 관객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상영관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개봉 첫날 579개였던 상영 스크린 수는 둘째 날 658개, 셋째 날 774개로 늘었고, 이에 따라 관객 수도 7만 8735명, 9만 4791명, 20만 5618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초반 흥행실적은 다규 영화로서는 이례적인 것이다.

역대 다규 최고 흥행작인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누적관객 480만 1873명)의 경우 개봉 초반 하루 관객 수는 1만~2만 수준이었다가 입소문이 나면서 관객이 점차 늘어 개봉 11일째 관객 20만 명을 돌파, 이후에도 계속 관객이 늘어 하루 관객 수가 29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연협뉴스



‘노무현입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치러진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지지율 2%로 시작해 대선후보의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을 되짚는 다규멘터리다.

당시 경선 자료 화면과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작가 등 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 39명의 인터뷰를 교차시키면서 ‘인간 노무현’에 대해 이야기한다.

연협뉴스

# 임수향 주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KBS 1TV 29일 첫 방영

파출소를 무대로 한 일일극이 찾아온다. KBS 1TV는 29일부터 평일 오후 8시25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방송한다.

지난 2월 막을 내린 MBC TV 주말극 ‘불어라 피용아’에서 역량을 연기하며 주목받았던 임수향(27)이 이번에는 타이틀 롤을 맡아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드라마는 사별한 남편 대신 경찰이 된 ‘무궁화’가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임수향이 맡은 ‘무궁화’는 복서 출신으로, 승부욕과 자존심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알고 보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인물이다.



도지환(26)은 파출소 팀장 ‘차태진’을 맡아 임수향과 호흡을 맞춘다. 차태진은 빼빼 굵은 종갓집 가문의 종손이자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경찰로, 불의를 못 참는 정의파다.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과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 때문에 입은 상처가 큰 인물이다.

연협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윤정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 쓰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방송뉴스 45 파수꾼 (재)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방송경제 40 KBC 생방송
11	00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영화가 좋다 (재)		00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2	30 KBS 뉴스 12	00 쌤. 마이웨이 (재)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1	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팔도밤산 스페셜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10 키즈 사이언스6 55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재)	00 SBS 뉴스 25 KBC특집 파워인터뷰
2	00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토크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강건문록 남도에 살아라! 3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엽기적인 그녀 미리보기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쌤. 마이웨이 1~2회 특별판	55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쌤.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 40 특집다큐 2부작 (나눔, 세상을 바꾸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2017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0 초인가족 2017
12	3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35 비바 K리그	20 MBC 뉴스 24 4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55 스포츠특선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신문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자연을 속삭여 노래하라 풍갈>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숙제대지고! 셀러드와 가지냉국>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힘스 - 한국에 신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 한국에 신다 12:40 평등채널(재) 12:45 과학 다크 비온드 (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자 셋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콩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콩(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17:15 엄마 개투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우리가 몰랐던 베트남 - 영원히 봄날(재) & 심다만 달랠> 21:30 한국기행 <막개비의 탄생 - 작은 고추가 맛있다> 21:50 EBS 다크 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 진학 인생, 가짜 인생)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가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24:30 세계의 드라마 <에이 워드 4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9일(음 5월 4일 丙辰)
<b>子</b> 48년생 밤심하고 다니다면 걸림돌에 넘어질 수도 있다. 60년생 작은 불똥이 튀어서 큰불이 될 수 있는 조짐이다. 72년생 살행하고 자 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 볼 일이다. 84년생 무모함은 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행운의 숫자 : 69, 74	<b>午</b> 42년생 안도의 한숨은 돌리지만 마음은 불편하게 되어 있다. 54년생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사귀기정리다. 66년생 막연하다면 위험하다. 78년생 숨이 가쁘도록 뛰어다녀야 할 바쁜 날이다. 90년생 상황 운리에 따라서. 행운의 숫자 : 05, 58
<b>丑</b> 49년생 힘든 만큼에 비례해서 향후의 결실은 알찰 것이다. 61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구조물이 들어설 수 있다. 73년생의 운이 가는 대목이 있거나 속속들이 점검하라. 85년생 요철 북돋을 노릇이다. 행운의 숫자 : 09, 11	<b>未</b> 43년생 길오만 봉합되어 있을 뿐이다. 55년생 반드시 욕망을 가려야 한다. 67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고과도 굉장하다. 79년생 준비되어 있다면 즉시 실행해도 좋다. 91년생 현상 유지만 하여도 선방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67
<b>寅</b> 50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62년생 짐작지 못한 불패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74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리라. 86년생 원래부터 존재했던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1, 87	<b>申</b> 44년생 형식적인 허울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낫다. 56년생 생 남남이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68년생 지구력의 강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80년생 함께한다면 발전적인 힘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76, 461
<b>卯</b> 51년생 아량이면 다중적인 복합 기능이 경제적이거나. 63년생 여러 가지가 겹치는 형상이다. 75년생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경계할 일이다. 87년생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적시의 정지는 활력이 되어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64	<b>酉</b> 45년생 들어다보고만 믿고 결정을 내릴 때이다. 57년생 구체화되면서 가능성을 높게 되느니라. 69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묻어간다. 81년생 함심하여야 병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13
<b>辰</b> 52년생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접어 버려야만 후회하지 않는다. 64년생 파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익의 폭이 굉장하다. 76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미흡하다. 88년생 사심을 버려야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4, 32	<b>戌</b> 46년생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니 마음을 비우자. 58년생 대세를 광망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유익하다. 70년생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 82년생 분주한 시각에 겹치는 일이 많아서 번거롭게 한다. 행운의 숫자 : 02, 29
<b>巳</b> 53년생 체면 처리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이나. 65년생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77년생 실익을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뜻을 확실히 펼처도 좋을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1, 57	<b>亥</b> 47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일한다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 59년생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 83년생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빠르다는 것을 알아. 행운의 숫자 : 59, 71